

육아휴직급여 오를까... 최저임금 수준 '만지작'

정부, 월 150만원→200만원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대상 확대 고민 소득대체를 낮아 육아휴직 사용률 OECD '최하위권'... 관건은 재원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인데, 정부는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지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대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다. 기간은 현재는 최대 12개월까지인데, 내년부터는 1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44.6%(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비슷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낮다.

낮은 소득대체를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하위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 기준 0.7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인구는 지난 6월까지 44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 기금이 주 재원이어서 사실상 직장인을 기반으로 한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도 현재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

금은 작년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 9000억원 적자 상태다.

홍 위원장은 "육아휴직급여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라는 것은 관계 부처들이 잘 알고 있지만,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며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를 지불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 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가칭) 신설, 국고 투입 확대 등이 거론된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환경·에너지 기업 엔텍스, 바이오오일 생산 연구 박차

'미세조류 활용 바이오오일 생산' 정부과제 채택 탄소저감 바이오항공유 생산 시스템 개발 속도

지역 환경·에너지 전문기업인 엔텍스(주)가 탄소저감형 바이오항공유 업그레이드용 바이오오일 생산 통합시스템 개발 연구에 착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탄소배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해운 분야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국내 정유 및 항공 산업 등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배출량을 저감 할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연료-연료생산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에너지 안보를 확립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및 수요 효율화 ▲에너지산업 혁신기반 조성에 중점을 맞춘 원전, 수요 효율화, 수소 등의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과제 75개를 신규로 선정 843억원을 투입한다. 원자력 23개, 수요 효율화 6개, 수소-연료전지-수소 혼소 및 저탄소발전 10개와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

는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 혼입 전주기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실증 등 2개, 전력계통 6개, 재생에너지 6개, 자원개발 2개, 인력양성 13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4개가 선정됐다.

바이오연료와 관련하여도 미세조류를 이용한 탄소저감형 바이오항공유 업그레이드용 바이오오일 생산 통합시스템 개발, 차세대 수첨 바이오연료 생산과 업그레이딩 통합공정 기술개발,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모빌리티 품질기준 개발 및 적용 기술개발 등 3개 과제가 채택됐는데, 엔텍스(주)는 지난 4월 '미세조류 활용 바이오오일 생산 통합시스템 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연구개발에는 ㈜씨엔에스아이엔티, 한양대학교, 경기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담당별로 프로젝트 수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총 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고, 연간 3t 이상의 바이오오일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엔텍스의 연구과제는 미세조류 대량생산, 저에



엔텍스는 최근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오일 생산 관련 프로젝트 진행 방향과 사업구성에 대해 발표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엔텍스 제공>

너지소비 고효율 바이오오일 생산, 탄소저감·자원순환형 공정으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오일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엔텍스는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난 7월 27일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프로젝트 진행 방향과 사업구성에 대해 발표를 하는 등 프로젝트와 관련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

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황정하 엔텍스 대표이사는 "이번 정부 과제에 회사 전체의 역량을 집중시켜 미래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 저감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지역 환경과 에너지 등 감소시켜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서부권 일자리박람회 성료 전남 20개사 참여

전남도는 지난 22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서부권 기업 20개사가 참여해 114명 채용을 목표로 한 일자리박람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남도 서부권 일자리박람회는 무안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광주전남중기청, 목포고용노동지청, 전남테크노파크, 한전KDN, 한국산업단지공단대불지사 등이 함께했다.

'더 좋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구직자에게 지역 우수기업의 취업 기회를, 구인 기업에 맞춤형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대풍이브이자동차, ㈜금화 등 다양한 업종의 20개사가 참여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이 진행됐다. 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지청, 유관기관 등이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시책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도 이뤄졌다.

박람회에서 채용 확정을 못한 구인기업과 구직자에 대해서는 전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구인·구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22일 '보름달 소원선물' 나눔활동에 나선 고병일(오른쪽) 광주은행장이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보름달 소원 선물' 행사

어린이에 학습용 전자기기 등...위탁가정엔 세탁기·건조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2일 '보름달 소원선물' 봉사활동을 펼쳤다.

'보름달 소원 선물 행사'는 가계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명절을 맞아 평소 원하는

선물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등 6명에게 학습용 전자기기, 자전거, 학습용품 등을 선물하고 위탁 가정에는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세탁기와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기탁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나눔활동으로 통상적인 기부금 후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탁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소중한 바람까지 챙겼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수확의 계절에 맞이하는 한가위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굶은 날씨와 물가상승 여파로 풍요로운 명절 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가 가족이 되어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광주은행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8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1 16 25 27 35 36	3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515,913,809	1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4,105,808	67
3 5개 숫자일치	1,313,483원	3,270
4 4개 숫자일치	50,000	155,241
5 3개 숫자일치	5,000	2,500,478

광주세무사회, 양동시장서 장보고 쌀 기부

화재예방 캠페인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지난 2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비롯해 광주세무사고시회, 광주여성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등 300여명이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또 화재대피용 생명구조대를 100여개를 양동시장 상인회에 전달하는 '화재예방 캠페인'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시장에서 구매한 쌀 160kg을 사회복지시설 '개미꽃동산'에 후원했다.

이밖에 한국세무사회가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 것을 기념해 양동시장 2층 전시실에서 약 3시간 동안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상담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실시했다.

김성후 회장은 "공공성이 높은 조세 전문가로서



우리 세무사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늘 고민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 걱정마세요

공과금 납부·만기 예금 등 10월 4일로 자동 연기 정책금융기관, 21.3조 규모 중기 특별대출·보증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필수 운전자금을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자가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준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에 지급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는 44만여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 연

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영·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에 나선다.

추석 연휴 운전자금이내 대금 결제 등이 필요한 회사가 대상이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 신용 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만기 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결제 등으로 거래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